

3면

베트남 2분기 성장

8.39%

2026년 2분기

베트남 2분기 성장 8.39% (1분기 7.94%)



사이공에서 세계 도시로

호찌민시(구 사이공)가 2026년 6월 100년 마스터플랜의 기본 골격을 공식 발표했다. 면적 6,700제곱킬로미터, 인구 1,400만 명의 이 도시는 2050년까지 지역총생산을 8,000억 달러(약 1,240조 원)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교하자면 2025년 한국 서울의 지역총생산이 약 6,000억 달러(약 930조 원) 수준이다...

4면



8.1조 원을 버는데 마진은 1.1조 원뿐

2025년 베트남 캐슈넛 산업의 역대 최고 수출 실적(52억 3,000만 달러·약 8조 1,000억 원)의 이면을 보면 불편한 숫자가 나온다. 원료 수입에만 45억 달러(약 7조 원)를 썼다. 남는 것은 약 7억 3,00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 마진을 13.9퍼센트다...

13면



닥락(Đắk Lắk) - 베트남 중부 고원, 커피·코끼리·폭포가 함께 치유하는 땅

베트남 커피 수도 부온마투웃(Buôn Ma Thuột), 호찌민시에서 북쪽으로 약 340킬로미터, 해발 500~600미터 중부 고원에 자리한 이 도시는 베트남 전체 커피 생산의 40퍼센트 이상을 책임진다. 거리 곳곳에서 커피 볶는 냄새가 난다...

18면



사장님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금융은 신한이
책임
지겠습니다



실시간 입금안내

계좌 입금 즉시
스피커로 입금 내용 안내



사업용 계좌

사업용 일출금 계좌에
최대 연 4.5% 이자 제공



스마트 결제 POS

한국어 지원 POS 제공
및 최저 카드 수수료 혜택



매장관리 서비스

여러 매장을 SOL App에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



SOL 앱 다운로드
QR 스캔



신한금융그룹 in Vietnam

Shinhan Bank Shinhan Finance Shinhan Securities Shinhan Life Shinhan DS

베트남 2분기 성장 8.39%(1분기 7.94%)

가속의 실체와 10% 목표의 현실

2026년 2분기 국내총생산 8.39% - 2011년 이후 최고 2분기 성장률 • 1분기 7.94%(상향 발전)보다 0.45%p 가속 • 상반기 평균 8.18% • 제조업 홀로 전체 성장의 33.07% 담당 • 고정투자 15.20% 급증 • 6월 수출 507억 9,000만 달러(+28.1%) • 세계은행, 베트남을 7월 1일 중상위 소득국으로 공식 재분류

한 분기 만에 성장이 더 빨라졌다.

베트남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8.39퍼센트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2분기 성장률이자 1분기(7.94퍼센트, 상향 발전)보다 오히려 빨라진 수치다. 전 세계가 이란 분쟁·유가 상승·미국 금리 정책으로 흔들리는 와중에 베트남은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이 성장의 실체는 무엇이고 정부가 내건 10퍼센트 연간 목표는 현실인가, 희망인가. 오늘 데 이터로 전부 해부한다.

2분기 성장률 (2011년 이후 최고)	제조업 성장 (성장의 엔진)	6월 수출 (원화 환산)
8.39% 1분기 7.94%(상향수정) 대비 +0.45%p • 상반기 평균 8.18%	10.23% 전체 성장의 33.07% 담당 • 고정투자 15.20% 급증	507억 9천만 달러 ≈ 78.7조 원 +28.1% • 1달러=1,550원 기준

▶ 2분기 부문별 성장률 및 기여도

부문	2분기 성장률	1분기 성장률	전체 부가가치 비중	특징
산업 · 건설	10.51%	9.01%	50.07%	성장 기여 최대, 인프라 투자 확대
↳ 제조업	10.23%	8.92%	33.07% (기여)	베트남 성장 엔진, 전자 · 반도체 주도
서비스	7.87%	8.33%	44.28%	소매 · 금융 · 관광 견조
농업 · 어업 · 임업	4.06%	3.58%	5.65%	수산업 4.88% 강세 · 메콩 델타 수해

① 2분기 성장 가속의 3대 실제 원인

8.39퍼센트라는 숫자 뒤에 세 가지 구체적인 동력이 있다.

첫째, 수출 주문의 대규모 회복이다. 미국·유럽 바이어들이 이란 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을 우려해 베트남 공장에 선제 발주(미리 주문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를 쏟아냈다. 그 결과 6월 수출이 507억 9,000만 달러(약 78조 7,000억 원)로 전년 대비 28.1퍼센트 급증했다. 반도체·전자·섬유·신발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고정투자의 폭발적 증가다. 2분기 고정투자(기계·장비·건물 등에 새로 투자하는 돈)가 전년 대비 15.20퍼센트 급증했다. 1분기(7.18퍼센트)의 두 배를 넘는 성장이다. 배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 집행 가속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들의 신규 설비 투자 확대다. 하노이 지하철 5개 노선 동시 착공(6월 22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세계은행의 소득 분류 격상이라는 상징적 사건이다. 세계은행은 7월 1일부터 베트남을 "하위 중소득국"에서 "상위 중소득국"으로 공식 재분류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는 통계적 인정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은 이제 다른 리그"라는 신호를 보낸다.

② 10% 목표, 가능한가 - 냉정한 숫자 분석

베트남 정부의 2026년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는 10퍼센트 이상이다. 상반기 실적 8.18퍼센트를 감안할 때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 필요한 성장률은 계산기로 확인하면 약 11.85퍼센트 이상이다.

이것이 가능한가. 메콩타임즈 편집부의 냉정한 판단은 "가능성이 낮다"이다. 세계은행은 6.8퍼센트, 국제통화기금은 7퍼센트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는 7.2퍼센트를 전망하고 있다. 이 기관들이 10퍼센트보다 낮게 보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생산 비용을 올리고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높이는 구조적 압박이 있다. 6월 물가 상승률이 4.69퍼센트로 정부 목표(4.5퍼센트)를 여전히 웃돈다.

그러나 10퍼센트를 못 달성한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다. 8~9퍼센트대 성장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 중 하나다. 브이엔다이렉트는 기본 시나리오로 연간 8.7퍼센트를 전망했다. 이 수준에서도 베트남은 인도네시아(5퍼센트), 태국(3퍼센트대), 말레이시아(5퍼센트대)를 압도한다.

③ 무역적자 전환 - 경고등인가, 성장통인가

이번 성장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신호가 있다. 베트남이 2026년 상반기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상반기 무역적자는 166억 5,000만 달러(약 25조 8,000억 원)다. 전년 동기 79억 5,000만 달러(약 12조 3,000억 원) 흑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원인은 두 가지다. 이란 분쟁으로 유가가 올라 원유 수입 금액이 크게 늘었다. 6월 기준 원유 수입량은 오히려 14.2퍼센트 줄었는데 금액은 17.7퍼센트 늘었다. 그만큼 원유 가격이 비싸진 것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위해 기계와 설비를 대거 수입했다. 실제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 수입이 45.3퍼센트 급증했는데 이는 나쁜 수입이 아니라 "미래 생산을 위한 투자형 수입"이다.

그래서 이 무역적자는 "경고등"보다 "성장통"에 가깝다. 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유가 상승과 투자 확대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단기적인 비용 상승과 투자 확대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 적자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④ 한국 투자 기업에게 시사하는 것 - 6가지 체크포인트

2분기 베트남 경제 데이터가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정리했다.

첫째, 고정투자 15.20퍼센트 급증은 "지금 설비를 늘리는 것이 맞다"는 신호다.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 설비를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다.

둘째, 제조업 10.23퍼센트 성장은 현지 법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모비스 등 베트남 현지 법인을 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이 성장을 반영해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수출 28.1퍼센트 증가는 베트남을 "수출 전진 기지"로 쓰는 기업들의 호재다. 특히 미국 시장으로의 베트남 생산 수출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중국+1 전략의 수혜가 베트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인플레이션 4.69퍼센트는 현지 임금·원자재 비용 관리의 신호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생산 비용도 오른다.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원가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세계은행의 상위 중소득국 재분류는 조달 비용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 일부 공적개발원조(ODA)와 유리한 금리의 차관이 줄어들 수 있어 베트남 정부의 인프라 자금 조달 방식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여섯째, 에프티에스이(FTSE) 신흥시장 편입(9월 21일·D-77일)이 가까워졌다. 베트남 주식에 투자한 한국 펀드·기관 투자자들에게 이 이벤트 전후의 매수·매도 전략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 편집부 종합 평가 - 목표는 10%지만 실적은 8~9%,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2분기 8.39퍼센트 성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베트남 경제의 기초 체력이 예상보다 강하다."

10퍼센트 목표는 달성이 어렵다. 하반기에 11.85퍼센트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이란 전쟁 · 유가 상승 · 글로벌 금리 압박이라는 역풍이 여전하다. 그러나 8~9퍼센트대 성장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고 FTSE 편입이라는 구조적 호재가 하반기 자금 유입을 이끌 수 있다.

무역적자 전환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보다는 에너지 비용과 투자 확대의 부산물로 읽힌다. 제조업 10.23퍼센트 성장과 고정투자 15.20퍼센트 급증이 "성장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하나다. 8퍼센트대 성장, 중상위 소득국 격상, FTSE 신흥시장 편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베트남 하나뿐이다.

[출처: 베트남 국가통계청(NSO) · 브이엔이코노미(VnEconomy) · 더스타(The Star) 말레이시아 · 트레이딩이코노믹스 · 세계은행 · 브이엔다이렉트 2026 전망 (2026.07.03~05)]

사이공에서 세계 도시로

호찌민시 100년 마스터플랜, 2050년 1,240조 원 경제도시의 설계도

2026년 6월 확정 발표 · 면적 6,700km² (호찌민+빈즈엉+바리아붕따우 통합) · 현 인구 1,400만 명 → 2050년 2,200만~2,500만 명 · 2030년 지역총생산 목표 1,200억 달러(186조 원) → 2050년 8,000억 달러(1,240조 원) · 5+5+10 다중심 메가시티 프레임워크 · 동부 혁신허브(반도체 · 인공지능) + 남부 항만 · 자유무역지구 + 해안 관광극 · 5개년 공공투자 800조 동(47.1조 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도시가 자신의 100년 미래를 설계했다.

호찌민시(구 사이공)가 2026년 6월 100년 마스터플랜의 기본 골격을 공식 발표했다. 면적 6,700제곱킬로미터, 인구 1,400만 명의 이 도시는 2050년까지 지역총생산을 8,000억 달러(약 1,240조 원)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교하자면 2025년 한국 서울의 지역총생산이 약 6,000억 달러(약 930조 원) 수준이다. 호찌민시는 2050년에 서울보다 큰 경제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설계도의 실체를 해부한다.

2050년 지역총생산 목표	통합 면적 (3개 성시 합산)	5개년 공공투자 예산
8,000억 달러 ≈ 1,240조 원 현재 대비 약 7배 성장 · 서울 수준 초과 목표	6,700km ² 호찌민+빈즈엉+바리아붕따우·서울의 약 11배	800조 동 ≈ 47.1조 원 세계은행: 민간투자 3~5배 (141~235조원) 유도 가능

▶ 호찌민시 100년 성장 목표				
목표 연도	지역총생산(달러)	지역총생산(원화)	인구	1인당 국민소득
현재 (2026)	650~700억 달러 (추정)	100~108조 원 (추정)	1,400만 명	8,500달러 이상
2030년	1,100~1,200억 달러 목표	170~186조 원	1,600만 명	14,000달러 이상 · 연 10%+
2045년	5,000~5,500억 달러	775~852조 원	2,000만 명	75,000달러 · 한국 수준
2050년	8,000~1조2,000억 달러	1,240~1,860조 원	2,200만 ~2,500만 명	아시아 최상 위권
2075년	트리플 A 도시 목표	—	—	1인당 100,000 달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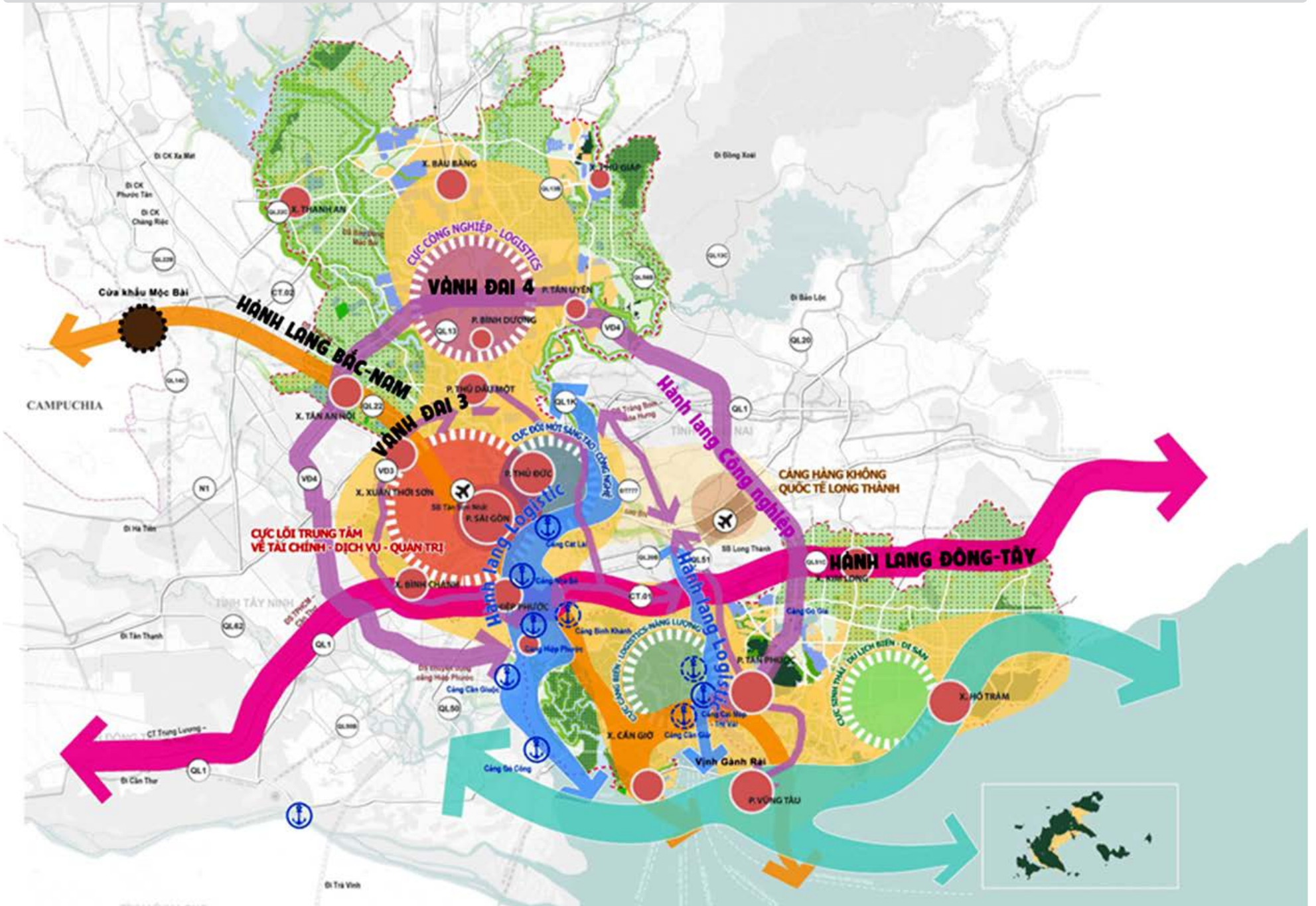
① 100년 마스터플랜의 탄생 - 왜 지금, 왜 100년인가
호찌민시 100년 마스터플랜은 2026년 6월 2일 시 인민의회 세미나에서 기본 골격이 처음 공개됐다. 11월 30일까지 최종 확정 예정이다.

이 계획이 나온 배경에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있다. 첫째, 행정 통합이다. 호찌민시는 빈즈엉성(Binh Duong)과 바리아붕따우성(Bà Rịa-Vũng Tàu)과 합쳐지며 면적 6,700제곱킬로미터의 거대 행정구역이 됐다. 이 새 도시는 베트남 국내총생산의 23퍼센트, 국가 세수의 30퍼센트 이상을 혼자 생산한다. 이 규모에 걸맞는 새 도시 설계가 필요했다.

둘째, 기후 위기다. 호찌민시는 해수면 상승·홍수·도시 열섬 현상에 가장 취약한 동남아시아 대도시 중 하나다. 당장의 개발을 넘어 100년 후 기후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도시 설계가 필요했다. 이것이 "100년"이라는 시야를 선택한 이유다.

셋째, 세계 경쟁이다. 싱가포르 영사관이 이 마스터플랜 세미나에서 "지속 가능하고 녹색적인 호찌민시의 마스터플랜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시는 이제 국가 간이 아니라 도시 간 경쟁 시대다. 호찌민시는 싱가포르·방콕·쿠알라룸푸르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허브 도시"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 5+5+10 프레임워크 — 5개 성장극 상세				
번호	성장극 명칭	핵심 기능	해당 지역	한국기업 기회
①	국제금융 · 상업 중심 (Core)	국제금융·무역·법률 글로벌 서비스 허브	사이공·쩌런·투티엠	증권·금융IT·법률사무소·회계법인 진출 최적 거점
②	동부 혁신 허브	인공지능·반도체 연구개발·지식산업	투득·디안·투안안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파운드리 협력·스타트업 인큐베이팅
③	북부 산업·물류 거점	첨단제조업 스마트공단	빈즈엉 (Binh Duong)	현대·포스코·LG등 제조 법인 확장 + 스마트공장 솔루션
④	남부 항만·자유무역 에너지 허브	국제환적·해상물류 해상풍력·자유무역역구	껀저·까이몹	현대글로벌비스·HMM 물류망 해상풍력 터빈·케이블 공급
⑤	해안 관광 거점	국제리조트·야간 경제 크루즈 터미널	붕따우·롱하이·호째	롯데·파라다이스 리조트·카지노 복합개발 참여



② 5개 전략 회랑 - 도시를 묶는 핏줄

5개 성장극이 "거점"이라면 5개 전략 회랑은 이 거점들을 연결하는 "핏줄"이다.

첫 번째 회랑은 동부 관문 회랑이다. 호찌민시 중심부에서 비엔화(Biên Hòa) 산업 벨트와 롱탄 신국제공항(2026년 말 완공 목표)을 연결한다. 제3·4 순환도로와 여러 고속도로로 이루어진 복합 교통망이 뼈대다.

두 번째는 메콩 델타 연결 회랑이다. 호찌민시-쾨터(Cần Thơ) 철도가 이 회랑의 핵심이다. 메콩 델타의 농업·수산업 생산물을 호찌민시 항만으로 실어나르는 경제 통맥이 된다.

세 번째는 남부 해안 회랑이다. 메콩 델타에서 쾨터(Cần Giẽ)를 거쳐 까이몹-티바이(Cái Mép-Thị Vải) 항만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는 해양 경제·물류·생태 해안 도시 벨트다. 2026년 7월 1일 착공한 3,000억 동(약 1,768억 원) 규모의 "다이아몬드 교차로"가 이 회랑의 핵심 교차점이다.

메트로(지하철)·경전철·모노레일·지하·고가 도로까지 모든 교통 수단을 통합한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모델이 이 5개 회랑을 지탱하는 원칙이다.

③ 녹색·탄소중립 도시 - 기후 위기 시대의 호찌민시

호찌민시 100년 마스터플랜의 숨겨진 핵심은 "녹색"이다.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사이공강·동나이강과 쾨터 맹그로브 숲(세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녹색·파란 회랑"으로 설정됐다. 이것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도시의 홍수 적응·열섬 완화·탄소 흡수를 담당하는 "생태 인프라 시스템"으로 규정됐다.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버스·수상 교통·에너지 효율 건물이 우선 투자 대상이다. 바리아붕파우 해역의 해상풍력 단지도 메가시티의 에너지 자립 전략의 핵심이다. 세계은행은 "마스터플랜에 녹색채권·탄소 크레딧 같은 혁신적 금융 수단을 도입하면 5개년 공공투자 800조 동(47조 원)의 3~5배에 달하는 민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가지 민감한 과제가 있다. 기존에 별도로 소개한 빈훙즈 그린 파라다이스 쾨터 개발과 쾨터 맹그로브 숲 보전 사이의 균형 문제다. 마스터플랜은 쾨터를 "남부 항만·자유무역·에너지 허브"이자 "생태 보전 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이 메가시티 계획의 가장 큰 과제다.

④ 한국 기업에게 호찌민시 100년 마스터플랜이 보내는 신호

호찌민시 100년 마스터플랜은 한국 기업들에게 분야별로 매우 구체적인 기회의 지도를 제공한다.

가장 직접적인 기회는 동부 혁신 허브(투득·디안·투안안)다. 인공지능·반도체·연

구개발에 집중하는 이 극(極)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이미 투득시에 뿌리를 내린 지역이다. 마스터플랜이 이 지역을 공식 성장극으로 지정하면서 삼성·SK하이닉스·LG전자의 추가 투자가 더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받게 됐다.

두 번째 기회는 남부 항만·자유무역 허브다. 까이몹 항만은 이미 한국 선사들이 기항하는 주요 터미널이다. 자유무역지구(FTZ·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세금 면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특별구역)가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생산 → 자유무역구 완성 → 무관세 아세안·미국 수출"이라는 경로를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메트로·인프라 건설 시장이다. 5개 전략 회랑과 지하철 확장에 들어갈 총 공공투자 800조 동(47조 원) 규모의 공사가 하반기부터 발주될 전망이다.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 등 베트남 건설 실적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메트로·교량·터널 등 핵심 공사 참여 기회가 열린다.

네 번째는 스마트시티·디지털 인프라다. 마스터플랜은 2035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을 지역총생산의 60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고 명시했다.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 같은 한국 플랫폼·통신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관리 시스템·전자정부·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호찌민시에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열린다.

★ 편집부 종합 평가 - 사이공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호찌민시 100년 마스터플랜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사이공은 지금 세계 도시가 되기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2050년 지역총생산 8,000억 달러(1,240조 원)라는 목표는 지금 당장은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한국 서울의 2025년 지역총생산이 약 6,000억 달러라는 점을 생각하면, 24년 후에 서울을 넘는다라는 목표는 "꿈"이 아니라 "전략"이다. 베트남의 현재 성장 속도와 호찌민시의 잠재력을 있는 그대로 연장하면 그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지 않다.

제1편에서 소개한 빈훙즈 글로벌 게이트 하룽(깡닌성)이 "민간이 만드는 메가시티"의 이야기라면 호찌민시 100년 마스터플랜은 "국가와 도시가 함께 만드는 메가시티"의 이야기다. 두 이야기는 베트남 도시 개발의 두 개의 엔진이다. 하나는 민간 자본의 속도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전략의 방향이다.

FTSE D-72일, 금값 조정, 원화 강세

7월 7~10일 베트남 · 한국 금융시장 핵심 흐름



브이엔-인덱스 (이번 주)	SJC 금괴 (7월 9일 매도)	달러-원 (오늘 실시간)
1,850~1,870p 9월 21일 FTSE 편입 D-72	1억 4,850만 동 국제 금 \$4,058 → 주간 -3백만 동	1,511.17원 52주 범위 1,365~1,562원

①VN-Index - FTSE D-72일, 박스권 속 기대감 유지

이번 주 VN-Index는 1,850~1,870포인트 박스권에서 등락했다. 5월에 기록한 연고점 1,937포인트에서 약 3~4퍼센트 조정된 수준이다. 이란 전쟁 충격과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수를 누르고 있지만 FTSE 신흥시장 편입(9월 21일·오늘 기준 D-72일)이라는 강력한 하단 지지 재료가 버티고 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변수는 두 가지였다. 첫째, 블룸버그가 7월 9일 발표한 2026년 베트남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 7.3%다. 정부 목표(두 자릿수)에는 못 미치지만 글로벌 평균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치여서 외국인 매수 심리를 지지했다. 둘째, 무디스(Moody's)가 최근 베트남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효과가 이번 주까지 이어졌다. 신용 등급 전망 상향은 채권 금리 하락과 주식 밸류에이션 확대에 직결된다.

외국인 순매도는 여전히 부담이다. 호치민 증권거래소(HoSE)에서 외국인은 이번 주도 순매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9월 편입이 가까워질수록 패시브 펀드의 선매수가 유입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하방을 막고 있다. 세계은행과 FTSE 러셀은 편입 시 약 50억~60억 달러(약 7.6조~9.1조 원)의 해외 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한다.

▶ FTSE 편입 예정 28개 종목 - 주요 수혜주 (참고용·투자 권유 아님)

종목	분야	특징	편입 근거
빈그룹(VIC) 빈홀즈(VHM)	부동산 복합기업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8개 프로젝트 착공 빈홀즈 글로벌 게이트 하 룽 개발	시가총액 최상위· FTSE 편입 리스트 1 순위
비엠펜뱅크(VCB) 비아이디브이(BIDV)	금융· 은행	국영 은행 양대 축 에프티에스이 신흥지수 금 웅 쿼터 충족	외국인 자본 여유 있 어 패시브 펀드 매수 용이
마산그룹(MSN)	소비재	윈커머스(WinCommerce) 7,000개 편의점 브랜드 소비재 1위	소비시장 성장 수혜 · 외국인 한도 미달
에프피티(FPT)	기술·IT	반도체·AI·소프트웨어 수출 일본·미국 시장 확장 중	기술주 대표·고성장 밸류에이션
호아팻(HPG)	철강· 산업	베트남 최대 철강사 인프라 투자 수혜 직접 연결	건설·인프라 붐과 동반 성장

②금(金)시장 - 주간 3백만 동 급락, 국제 조정과 동조

베트남 금 시장이 이번 주 큰 폭으로 하락했다. SJC 금괴 매도 가격은 지난주 말 1억 5,140만 동에서 이번 주 금요일 1억 4,850만 동으로 약 300만 동(약 17만 2,000원) 하락했다.

하락의 직접 원인은 국제 금값 약세다. 국제 금 시세는 1월 최고점 5,594달러에서 현재 4,058달러로 4개월 만에 약 27퍼센트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유지 기조와 달러 강세가 금의 투자 매력을 낮췄다. 6월 미국 금상장지수펀드(ETF) 순유출이 53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도 압박 요인이다. 그러나 베트남 국내 금값과 국제 시세 간 프리미엄은 여전히 온스당 약 18백만 동 이상으로 국내 수요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다.

③달러-원 · 달러-동 환율 - 원화 강세, 동화 안정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변동성이 컸다. 월요일 1,530원에서 출발해 화요일 1,504원까지 빠르게 하락했다가 오늘 금요일 1,511원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 구간의 원화 강세는 한국의 5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인 386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이 직접 원인이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67.7퍼센트 폭증하며 무역 흑자를 이끌었다. 오늘 소폭 반등(1,504→1,511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6월 의사록 발표를 앞둔 달러 강세 재료가 반영됐다.

달러-동(VND) 환율은 이번 주 26,200~26,350동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베트남 중앙은행(국가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한 개입 여지를 남기고 있어 단기 급등락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란 전쟁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되면 수입 에너지 비용 증가로 동화 약세 압력이 재현될 수 있다.

★ 이번 주 편집부 시장 종합 시각

이번 주 베트남 금융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기다림"이다.

VN Index는 FTSE 편입 D-72일을 앞두고 조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금값은 국제 조정에도 동조했지만 국내 프리미엄이 버티고 있다. 달러-원은 원화 강세 재료와 달러 반등 재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세 시장 모두 "방향을 정하기 전 눈치 보기" 구간에 있다.

베트남 주식에 관심 있는 한국 투자자라면 편입일(9월 21일) 2~3개월 전인 지금이 선매수 검토 구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단, 이란 분쟁 추이·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베트남 물가(목표 4.5%)가 동시에 변수로 작용하므로 분산 접근이 합리적이다. ※ 이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사파마 힐링캠프
SAFAMA HEALING CAMP

14세기부터 19세기 명화
숲속의 야외오픈 프로젝트

모나리자
에서
르누아르
까지

2026. February. 14
2026. August. 14

세계명화 대전

서양 미술사 600년 레플리카 전을 엿니다

소비 약세라는 통념을 깨다

베트남통계청 공식 발표, 상반기 소매 · 소비서비스 12.9% 성장의 실체

통계청 원문: 상반기 소매 · 소비서비스 총매출 3,889.5조 동(229조 원) +12.9% · 실질 성장(물가 상승 제거) +7.3% · 2분기 +13.9%로 가속 · 귀금속 · 보석 +31.3% 1위 · 숙박 · 음식 +15.6% · 의류 +12.5% · 팡닌 +14.1% 지역 1위 · 최저임금 +12% 효과 · 세계은행 중상위 소득국 재분류 ·

몇 주 전, 본지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왜 약한지를 집중 조명했다. 높은 예금 금리에 돈이 묶이고, 부동산 침체로 자산 효과가 사라졌으며, 물가 상승이 실질 구매력을 깎는다는 세 가지 구조적 약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베트남 국가통계청(NSO)이 7월 3일 발표한 상반기 소비 데이터는 그 분석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다. 상반기 소매판매 및 소비서비스 매출이 12.9퍼센트 성장했다. 1분기 10.9퍼센트보다 오히려 가속됐다. 물가 상승 부분을 빼고 계산한 실질 성장도 7.3퍼센트나 된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오늘은 이 숫자의 실체를 해부하고 한국 브랜드들에게 무슨 의미인지까지 짚어본다.

상반기 명목 성장 (전년비)	실질 성장 (물가 제거)	2분기 성장 (전년비)	6월 단독 성장 (전년비)
+12.9% 3,889.5조 동 (229조 원)·1분기 +10.9%에서 가속	+7.3% 물가 상승분 제 거, 구매력 회 복 확인	+13.9% 1분기(+11.4%)보 다 2.5%p 추가 가 속·가속도 불능 중	+14.8% 665.6조 동(39.2 조 원)·모멘텀 연 말까지 지속 전망

▶ 부문별 소매 · 서비스 매출 — 통계청 원문 수치, 계산기 검증
※ 환율 1달러=1,550원 · 1달러=26,300동 적용 / 출처: 국가통계청 2026.07.03

부문	동화 매출	달러 환산	원화 환산	성장률	비중 · 특징
총 합계 (상반기)	3,889.5 조 동	\$1,479억	229조 원	+12.9%	실질 +7.3% (물가 제거)
소매판매	2,941.8조 동	\$1,119억	173조 원	+12.5%	전체 75.6%·최대 부문
숙박·음식	493조 동	\$187.5억	29.1조 원	+15.6%	관광 호황 직접 수혜
기타 서 비스	404.9조 동	\$154억	23.9조 원	+12.5%	금융 · 헬스케어 등
여행·관광	49.8조 동	\$18.9억	2.9조 원	+15.0%	칸화성 +32.2% 최고

① 약세론의 반론 - "실질 7.3% 성장"이 의미하는 것
베트남 소비자 약세론의 핵심은 "물가가 올라서 명목 매출이 늘어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을 검증해보자.
베트남 통계청은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 성장률을 별도로 발표했다. 7.3퍼센트다. 2026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4~5퍼센트대임을 감안하면 12.9퍼센트 성장에서 물가 효과를 빼도 7.3퍼센트가 남는다. 이것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물건을 샀다"는 뜻이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늘어 보이는 착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약세론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고금리 예금·부동산 침체·물가 부담이라는 구조적 약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들을 넘어서는 더 강력한 소비 촉진 요인들이 상반기에 작동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약세"와 "강세"가 동시에 진행 중인 복합적 시장인 것이다.
소비를 이긴 세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임금 상승이다. 베트남 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12퍼센트 올랐다. 하반기 소비에도 이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둘째, 관광 폭발이다. 상반기 외국인 1,230만 명 방문(+14.9%)이 숙박·음식·관광 서비스 소비를 끌어올렸다. 셋째, 전자상거래 확산이다. 쇼피·틱톡샵을 통한 지방 소비자들의 구매가 전체 소비 저변을 넓혔다.

② 지역별 소비 지도 - 팡닌 · 다낭이 앞서고 호찌민시가 뒤따른다
성장률 상위 지역이 보여주는 패턴이 흥미롭다.
1위 팡닌(+14.1%)은 하롱베이로 낀 관광 성지다. 빈훅즈 글로벌 게이트 착공(2025년 12월), 하노이~하롱 고속철도 계획 등이 겹치며 관광과 부동산 기대감이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 2위 다낭(+13.9%)은 다낭 국제불꽃축제(DIFF 2026)가 세계 9대 여름 축제에 선정되며 관광 소비가 폭발했다.
반면 호찌민시(+12.1%)는 전국 평균 12.9퍼센트에 못 미쳤다. 이것은 "호찌민시 소비가 약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방 도시들의 소비가 더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신호다. 소비 지도가 호찌민시와 하노이 양극 중심에서 전국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행·관광 서비스에서는 이 분산이 더 극적이다. 칸화(나트랑 포함)+32.2%)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후에(+27.7%)·팡닌(+27.1%)이 뒤따른다. 한국의 기업들이 호

품목	성장률	성장 배경	한국 기업 관련성
귀금속·보석	▲31.3%	부동산 부진 속 안전자산 선호 급증. 중산층 웨딩·선물 수요	한국 주얼리 브랜드(제이 에스티나 등) 프리미엄 진출 기회
숙박·음식서비스	▲15.6%	관광객 +14.9% · 국내 여행 폭발 · 외식문화 확산	한국 음식점 · 카페 체인 확장 최적 시점
여행·관광	▲15.0%	칸화 +32.2% · 후에 +27.7% · 팡닌 +27.1% 주도	한국 여행사 · 항공사의 현지 관광상품 협력
석유제품	▲15.3%	경제 활동 활성화 · 물류 증가 반영. 실수요 지표	한국 에너지 · 운할유 기업 물류 인프라 협력
목재·건축자재	▲13.2%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주거용 수리 수요도 증가	한국 건자재 · 인테리어 브랜드 B2B 수주 기회
의류·의복	▲12.5%	K-패션 영향 + 중산층 의류 지출 증가 + 온라인 구매 확산	K-패션 브랜드(믹스믹스 · 젠틀몬스터) 직접 수혜
전자·가전 (추정)	▲12%+	스마트폰 · TV · 에어컨 교체 수요. 비엠펙 여행 증가 → 소비 자신감 ↑	삼성 · LG 현지 법인 판매 호조 지속
식품·생필품	▲11%+	최저임금 +12% 효과. 편의점 · 대형마트 매출 동반 상승	CJ·오리온·농심등한국식품브랜드매출동반증가

찌민시·하노이만 보지 말고 이 고성장 지방 도시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③ 한국 상품 판매 가능성 - "가격 소폭 인상도 수용"하는 계층이 형성됐다
이번 소비 데이터가 한국 브랜드들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이것이다. "가격을 조금 올려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금속·보석 31.3퍼센트 성장은 단순한 생활 필수품 소비가 아니라 "럭셔리 소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세계은행이 7월 1일 베트남을 "상위 중소득국"으로 재분류한 것과 일치한다. 이 계층은 한국 프리미엄 주얼리·뷰티·패션·식품에 대해 "비싸도 좋은 것"을 선호한다.
의류 12.5퍼센트 성장은 K-패션의 직접 수혜다. 몇 주 전 본지가 보도한 K-패션 베트남 연간 성장률 39퍼센트와 이번 의류 전체 12.5퍼센트를 함께 보면 K-패션이 베트남 의류 시장 평균의 3배 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믹스믹스·젠틀몬스터 같은 브랜드들이 가격을 소폭 올려도 베트남 소비자들이 수용하는 이유다.
숙박·음식 15.6퍼센트 성장은 한국 외식 브랜드에게 직접적인 기회다. 한국 음식점·카페 체인은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외식"으로 포지셔닝되어 있다. 현지 식당보다 비싸지만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의미 있는 외식 경험" 수요가 커지고 있다. CJ·파리바게뜨·교촌치킨 등 한국 외식 브랜드의 베트남 가맹점 확장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
전자·가전 분야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재무부와 7월 2일 협의에서 올해 10억 달러(약 1조 5,500억 원)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이것은 삼성이 베트남 소비 시장의 성장을 "생산 기지"를 넘어 "판매 시장"으로도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다.

★ 편집부 종합 평가-이중 엔진 성장의 확인, 그리고 한국 브랜드의 타이밍

베트남 소비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약세와 강세가 공존하지만 전체 방향은 성장 쪽이다."

고금리 · 부동산 침체 · 물가 부담이라는 약세 요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2퍼센트 인상 · 관광 폭발 · 전자상거래 확산 · 중산층 확대라는 강세 요인들이 이를 압도하고 있다. 실질 7.3퍼센트 성장이 그 증거다.

"이중 엔진(수출+소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수치가 확인해준다. 2분기 국내총생산 8.39퍼센트 성장에서 내수 소비는 고정투자 15.2퍼센트 성장과 함께 핵심 동력으로 기여했다.

한국 브랜드들에게 지금은 가격 전략을 재고할 시점이다. 베트남 시장에서 "가성비"만 강조해온 한국 브랜드들이 있다면 "프리미엄 포지셔닝"으로 전환을 검토할 때다. 귀금속 31.3퍼센트 · 숙박 15.6퍼센트 · 의류 12.5퍼센트 성장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더 좋은 것에 더 많이 쓸 준비"가 됐다는 신호다. 이 창문이 열려 있는 지금이 가격을 소폭 올리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타이밍이다.

22조 원짜리 청사진이 현실이 된다 호찌민시 8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한국 기업 기회

총 투자 381,652억 동 = 145억 달러 = 22조 2,000억 원(1달러=1,530원 기준) · 꺀저-붕따우 해상 교량 · 터널 5.4조 원 최대 규모 · 투티엠-롱탄 메트로 10.2조 원 · 사이공강 수변 문화공원 1.7조 원 · PPP(민관협력) · BT(건설-이전) 방식 민간 자본 주도 · 빈그룹 · 타코(쑹하이) · 선그룹 3대 민간 기업 대거 참여 · 2027~2030년 완공 로드맵



7월 1일 아침, 호찌민시 나룻 부두 앞에 기증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호찌민시로 개명한지 50주년, 기념식을 겸한 8개 핵심 프로젝트 동시 착공식의 시작이었다. 총 투자액 253,033억 동, 현재 환율(1달러=1,530원) 기준 약 96억 달러, 약 14조 7,000억 원이다. 그러나 이것은 7월 1일 당일 착공분만의 숫자다. 이전에 이미 착공했거나 동시에 진행 중인 연관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총규모는 381,652억 동, 약 145억 달러, 약 2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오늘 이 거대한 청사진을 프로젝트별로 완전히 해부한다.

8대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	최대 단일 프로젝트 꺀저-붕따우 해상교량	투자 방식
145억 달러 ≈ 22.2조 원 253,033억 동(7/1 착공분)·환율 1달러=1,530원	35.4억달러 ≈ 5.4조 원 14.06km · 해상교 8km+터널 3.85km · 2029년 완공	PPP·BT 민간 주도 빈그룹·타코·선그룹 등 민간이 건설 후 정부 이전



▶ 호찌민시 8대 핵심 프로젝트 상세

번호 · 프로젝트	총 투자액	달러 · 원화	방식	완공 목표	투자 방식
① 꺀저-붕따우 해상 교량·터널	93,000억 동	35.4억달러 ≈ 5.4조 원	PPP·BT	2029년	14.06km·해상교 8km+해상터널 3.85km·빈그룹 시공·10분 연결
② 투티엠-롱탄 메트로	175,000억 동	66.5억달러 ≈ 10.2조 원	BT	2030년	투티엠↔롱탄공항 직결·타코(쑹하이)투자·동나이·빈즈엉 연결
③ 뽀나롱칸 호이 문화공원·수변	29,317억 동	11.1억달러 ≈ 1.7조 원	PPP·BT	2029년	73.3ha·사이공강 수변·선그룹 시공·5구역 복합 문화공간
④ 호짬-롱탄 고속도로	51,516억 동	19.6억달러 ≈ 3.0조 원	PPP	2029년	호찌민시~붕따우 해안 관광벨트~롱탄공항 연결
⑤ 호찌민시-목바이 고속도로 본선	22,975억 동	8.7억달러 ≈ 1.3조 원	PPP	2029년	캄보디아 국경 목바이까지 연결·메콩 델타 물류 강화
⑥ 빈티엔 교량·도로	6,285억 동	2.4억달러 ≈ 3,657억 원	공공	2028년	2028년 도심 교통 분산·5군-8군 연결
⑦ 벵록롱탄↔롱삭 교차로	2,969억 동	1.1억달러 ≈ 1,729억 원	공공	2027년	다이아몬드 교차로·7월 1일 착공·꺀저 유일 진입로 개선
⑧ 벵록롱탄↔국도50호 교차로	590억 동	2,240만달러 ≈ 337억 원	공공	2027년	2027년 소규모 교통 개선·남부 물류망 강화

① 핵심 포인트 - PPP • BT 민간 자본이 만드는 호찌민시

이번 8개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누가 돈을 내는가"이다.

8개 프로젝트 중 압도적 다수가 피피피(PPP•공공민간협력) 또는 비티(BT•건설-이전) 방식이다. 비티 방식이란 민간 기업이 먼저 돈을 들여 건설하고 완공 후 정부에 넘기는 대신 다른 땅(건설 이후 주변 개발권)을 받는 구조다. 베트남 정부 재정을 거의 쓰지 않고 민간 자본으로 공공 인프라를 짓는 혁신적 방식이다.

이 방식이 가능해진 것은 2025년 국회 결의(260/2025/QH15) 덕분이다. 이 결의로 수십 년간 방치됐던 프로젝트들의 법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벤나롱-껀저 메트로는 투자자 제안 접수에서 착공까지 단 10개월이 걸렸다. 그만큼 규제 개혁의 효과가 즉각적이었다.

참여 기업을 보면 베트남 민간 자본의 실력을 알 수 있다. 빈그룹은 꺀저-붕따우 해상 교량•터널을 포함해 3개 프로젝트를 맡았다. 타코(중하이 그룹)는 175,000억 동(10.2조 원) 규모의 투티엠-룽탄 메트로를 단독 수주했다. 선그룹은 사이공강 수변 문화공원 전체를 책임진다. 마스터라이즈는 푸미 2교량을, 소비코는 메트로 4호선을 각각 제안했다. 베트남 민간 대기업들이 국가 인프라 건설의 주역이 된 것이다.

② 게임 체인저 - 꺀저-붕따우 해상 교량 • 터널

8개 프로젝트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만들 것은 꺀저-붕따우(Cần Giờ-Vũng Tàu) 해상 교량•터널이다.

지금 꺀저에서 붕따우까지 가려면 페리를 타고 1시간 이상 걸린다. 이 교량•터널이 완공되면 그 거리가 자동차로 10분이 된다. 총 길이 14.06킬로미터, 이 중 8킬로미터는 해상 교량이고 3.85킬로미터는 해저 터널이다. 터널 입구는 양쪽 모두 거대한 연꽃 모양으로 설계됐다. 2026~2029년 완공 목표로 빈그룹이 시공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자는 두 곳이다. 첫째, 꺀저다. 빈홈즈 그린 파라다이스 메가 신도시(이전 본지 소개)가 바로 이곳에 있다. 지금은 접근이 불편해 분양이 지지부진하지만 교량 완공 후에는 호찌민시 도심에서 20~30분 거리의 "해변 신도시"로 변신한다. 둘째, 붕따우다. 이미 많은 부유층의 주말 별장이 있는 이 해안 도시가 "호찌민시 서초구"가 되는 것이다.

③ 사이공강 수변 공원 - 서울 한강에서 배우다

벤나롱-칸호이(Bến Nhà Rồng-Khánh Hội) 문화공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다.

115년 전 호찌민 주석이 독립을 찾아 베트남을 떠났던 나 롱(Nhà Rồng) 부두. 그 역사적 장소를 포함해 사이공강 변 73.3헥타르를 문화•역사•공원•상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선그룹이 29,317억 동(약 1조 7,000억 원)을 투자해 BT 방식으로 진행하며 2029년 완공이 목표다.

5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1구역(51.6헥타르)은 나 롱-칸호이로 호찌민 박물관 공간을 확장하고 녹지•문화•예술•스포츠•서비스 시설을 조성한다. 나머지 구역들은 역사적 항구 유산을 보존하면서 강변 산책로•뉴엔 따이트 탄 거리(Nguyễn Tất Thành)를 업그레이드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한강 수변 개발과 청계천 복원이 직접 레퍼런스로 언급되는 사업이다. 호찌민시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서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벤치마킹 사례로 공식 인용했다. 한국의 조경•설계•수변 도시 개발 경험이 이 사업에서 실질적인 컨설팅•시공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 프로젝트별 부동산 시장 영향 -지역별 수혜 분석

수혜 지역	핵심 프로젝트	기대 효과	투자 유망도
꺀저 (Cần Giờ)	해상 교량•터널 ① 통상 교차로 ⑦	붕따우까지 10분•빈홈즈 그린 파라다이스 접근성 폭발적 개선•생태 관광 도시화	★★★★★ 단기 선반영 시작
붕따우 (Vũng Tàu)	해상 교량•터널 ① 호팜 고속도로 ④	호찌민시 도심과 직결•해안 리조트•가족 주거 수요 급증•외국인 투자 유입	★★★★★ 2029년 완공 전 매수
투티엠 • 투득 (Thủ Thiêm • Thủ Đức)	메트로 ②	룽탄 신공항 직결•반도체•AI 동부 혁신허브와 공항 연결•업무지구 가치 상승	★★★★☆ 중장기 유망
4군•1군 강변 (벤나롱-칸호이)	문화공원•수변 ③	73.3ha 녹지•문화공간 조성•강변 주거 프리미엄 형성•관광•상업 활성화	★★★★☆ 2026~2029 선매수 구간
룽탄•동나이 (Long Thành • Đồng Nai)	메트로 ② 호팜 고속도로 ④	룽탄 신공항+메트로 복합 효과•배후 물류단지•주거 수요•산업용지 가치 상승	★★★★☆ 공항 완공 2027 연동
호팜•빈차우 (Hố Tràm • Bình Châu)	호팜 고속도로 ④	호찌민 도심~호팜 관광벨트 고속 연결•주말 리조트•고급 별장 수요 급증	★★★☆☆ 중기 유망
목바이•떠이닌 (Mộc Bài • Tây Ninh)	목바이 고속도로 ⑤	캄보디아 국경 물류 거점화•국경 경제구역 투자 활성화	★★★☆☆ 물류 산업용지 중심



④ 실행 진전도 - 이번에는 정말 지어지는가

베트남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착공 선언 후 수십 년 방치"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번 8개 프로젝트는 다를 것인가.

긍정적 신호가 여러 개 있다. 첫째, 법적 기반이 다르다. 국회 결의 260/2025/QH15가 발효되며 수십 년간 묶였던 프로젝트들의 행정 장벽이 제거됐다. 벤나롱-껀저 메트로의 제안 접수에서 착공까지 10개월밖에 안 걸렸다. 둘째, 민간 자본이 주도한다. 정부 예산 배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빈그룹•타코•선그룹 같은 자본력 있는 민간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짓고 나중에 보상받는 구조다. 이 기업들은 분명한 사업적 동기가 있어 지연 가능성이 낮다.

위험 요소도 있다. 비티 방식은 정부가 나중에 "다른 땅"으로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 땅의 가치 산정과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 과거 베트남에서 비티 프로젝트가 토지 보상 분쟁으로 지연된 사례가 있다. 해상 교량•터널처럼 기술적으로 복잡한 공사는 공정 지연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적 기념사업이라는 정치적 모멘텀이 완공을 압박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 한국 기업 분야별 참여 기회 — 실행 가능성 평가

분야	구체적 기회	해당 프로젝트	참여 방법
토목•교량 건설	해상 교량•터널 하도급 전문 공사 사창교•침매터널 기술 제공	① 꺀저-붕따우 ② 메트로 터널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이앤씨 빈그룹•타코 하도급 참여
철도•지하철 시스템	메트로 신호•통신•전기 시스템 역사 설계•인테리어	② 투티엠-룽탄 메트로	현대로템(차량)•LS전선 메트로 1호선 참여 레퍼런스 활용
수변•조경 문화시설	사이공강 수변 공원 설계•시공 한강•청계천 사례 직접 레퍼런스	③ 벤나롱-칸호이 문화공원	한강사업본부 컨설팅 수출 한국 조경•설계사 컨소시엄
스마트 시티 IT 인프라	교통 관제•스마트 신호 시스템 지하철 통합 운영 플랫폼	전 프로젝트 공통	삼성SDS•LG CNS•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 교통 솔루션 공급
금융•투자 (부동산)	수혜 지역 부동산 공동 개발 리츠(부동산투자신탁) 구성 가능	붕따우•꺀저•투티엠	한국 부동산 펀드•리츠 운용사 현지 디벨로퍼와 합작
호텔•리조트 개발	붕따우•호팜 프리미엄 리조트 투자 접근성 개선으로 수요 급증	①④ 수혜 지역	롯데호텔•파라다이스•신라 부동산 개발 법인 설립

★ 편집부 종합 평가 — 22조 원의 청사진, 한국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호찌민시 8대 인프라 프로젝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도시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연결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호찌민시는 도심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팽창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꺀저 • 붕따우 • 룽탄 • 목바이는 "너무 멀어서 개발이 안 된 곳"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들이 완공되면 이 모든 지역이 "호찌민시 30분 생활권"에 들어온다. 팽창에서 연결로, 개발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부동산 관점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지역은 꺀저와 붕따우다. 교량 • 터널 완공(2029년) 전에 가격이 선반영된다. 투티엠은 메트로 2호선(2030년 완공)과 함께 룽탄 신공항이라는 더블 호재를 받는다. 사이공강 변 칸호이 • 4군 일대는 문화공원 조성으로 강변 주거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진입 지점은 세 곳이다. 첫째, 해상 교량 • 지하철 터널 전문 공사의 하도급이다. 현대건설 • GS건설 • 포스코이앤씨는 베트남 지하철 1호선 공사 레퍼런스가 있다. 둘째, 사이공강 수변 공원 설계 • 조경이다. 서울 한강이 직접 레퍼런스로 언급된 이 사업은 한국 조경 • 도시설계 회사들에게 실질적 기회다. 셋째, 꺀저 • 붕따우 부동산 수혜 지역 투자다. 교량 완공 전 2026~2027년이 매수 적기라는 분석이 현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 영어 교육 선구자 ILA, 28년의 신뢰 그리고 AI 영어 교육의 도전

1998년 호찌민시 직장인 특별반으로 출발 · 2000년 첫 정규 센터 개설 · 현재 60개 이상 센터 · 15개 도시 · 교사 1,600명 · 수강생 22,000명 이상 · 100% 원어민 교사 · IELTS · SAT 시험 준비 전문 · 이큐티(EQT) 사모펀드 인수 후 다중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 추진 · 엘사 스피크 · 듀오링고 · AI 과외 앱의 도전
속 생존 전략 가동 중



1998년 호찌민시의 한 건물 안에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 영어 수업. 당시 베트남에는 이미 몇 개의 영어 학원이 있었지만 "100퍼센트 원어민 교사, 국제 기준 커리큘럼"을 내세운 곳은 없었다. ILA(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는 바로 그 간극을 파고들었다. 28년이 지난 지금 ILA는 15개 도시 60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하는 베트남 최대 프리미엄 영어 교육 브랜드가 됐다. 그러나 지금 ILA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서 있다. 월 수천 원짜리 인공지능 앱들이 "선생님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시대, ILA는 어떻게 이 도전을 헤쳐가고 있는가.

설립 · 현황	핵심 차별성	인공지능 도전
1998년 설립 60개 센터+ 15개 도시 · 교사 1,600명 · 수강생 22,000명+	100% 원어민 교사 베트남 공립학교 영 어 교육의 질적 공백 파고들	앱 시장 연 14.6% 성장 글로벌 디지털 영어 학습 시장 2026년 160억 달러

① 탄생 - 1998년, 공립 교육의 공백을 파고들다

ILA가 태어난 1998년 베트남은 도이머이(Đổi Mới·경제개혁) 10주년을 지나며 외국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다. 베트남 기업들과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영어는 생존 도구였지만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을 곳이 없었다.

공립학교의 영어 수업은 문법 암기와 읽기 위주였고 원어민과 실제로 대화를 나눠본 학생은 극소수였다. ILA의 창립자들은 이 구조적 공백을 정확히 짚었다. "문법이 아니라 실제로 쓰는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명확한 포지셔닝, "100퍼센트 원어민 교사"라는 검증 가능한 약속, 그리고 "국제 자격증(IELTS, SAT, TOFEL) 준비"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ILA의 첫 번째 무기였다.

2000년 호찌민시에 첫 정규 센터를 연 ILA는 이후 하노이·다낭·하이퐁으로 확장하며 베트남 전역 프리미엄 영어 교육의 기준점이 됐다. "ILA를 다닌다"는 것이 중산층 베트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종의 교육적 신분 증표가 된 것은 2010년대 중반의 일이다.

② 경쟁력 - 프리미엄의 세 기둥: 원어민 · 커리큘럼 · 브랜드 신뢰

ILA의 시장 지위를 지탱하는 기둥은 세 가지다.

첫째, 100퍼센트 원어민 교사다. 이것이 ILA의 가장 강력하고 모방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경쟁사인 브이유에스(VUS)가 원어민과 베트남인 교사를 혼합하고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 소수 정예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ILA는 전 센터에서 원어민 교사만 투입한다. 교사 1,600명 전원이 영어 모국어 화자다. 이 기준을 60개 센터에서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채용·훈련·관리 역량이 필요한 일이다.

둘째, 국제 커리큘럼 연계다. IELTS 준비 과정은 캠브리지 어세스먼트와 연계하고 SAT 준비는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과 묶는 방식으로 "영어 공부 → 해외 유학"이라는 학부모의 최종 목표와 직결시켰다. 이것이 ILA가 단순한 영어 학원이 아니라 "해외 유학 준비 플랫폼"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셋째, 브랜드 자산의 누적이다. 28년간 쌓인 유료생 네트워크와 학부모 입소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케팅 자원이다. 베트남 중산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ILA를 보내면 안심"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것은 브랜드가 광고비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운영 구조 - 60개 센터, 이큐티(EQT) 인수 후 다중 플랫폼으로

현재 ILA는 스웨덴계 사모펀드 이큐티(EQT) 미드마켓의 포트폴리오 기업이다. 이큐티 인수 이후 ILA의 전략이 크게 달라졌다.

규모 면에서는 15개 도시 60개 이상의 센터, 교사 1,600명, 동시 수강생 22,000명 이상 체제다. 호찌민시에만 26개 센터가 있고 본사는 투티엠 더 메트로폴(The Metropole Thu Thiem)에 있다. 하노이·다낭·하이퐁에도 복수의 센터를 운영한다.

이큐티의 전략은 "영어 학원"을 넘어 "다중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 방향이다. 첫째, 증가(中價) 영어 교육 시장 진입 - 지금까지의 프리미엄 포지션 아래에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브랜드를 추가한다. 둘째, 아이엘오(ILO) 국제 유아원·아동 보육 시장 진출이다. 셋째, 시험 준비 전문 트랙 강화다.

이것은 단일 브랜드 프리미엄 학원에서 "교육 그룹"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메가스터디·대교가 단일 과목에서 종합 교육 그룹으로 성장한 경로와 유사하다.



▶ 베트남 영어 교육 시장 경쟁 지형 - ILA vs 주요 경쟁자

구분	ILA	브이유에스 (VUS)	영국문화원 (BC)	인공지능 앱 (엘사·듀오링고)
설립·배경	1998년 설립 외국계 프리 미엄	1989년 설립 베트남 로컬 1위	1934년 영국 비영리 공공 기관	2015년~ 스타트업·빅테크
수업 방식	100% 원어민 교사 대면수업	원어민+베트남 교사 혼합	원어민 소수 정예	인공지능 앱 무제한 온라인
학원 수	60개+ / 15개 도시	170개+ / 전국	15개 내외	앱 기반 오프라인 없음
수강료 수준	프리미엄 (최상위권)	중상급 (중간)	프리미엄 (소수 정예)	월정액 (저렴)
강점	브랜드·품질 IELTS 준비	최대 네트워크 규모 경제	공신력 시험 준비	24시간 접속 개인화·비용
약점	높은 수강료 앱과 경쟁	품질 편차 원어민 부족	규모 제한 접근성 낮음	스피킹 한계 인간 교사 없음

④ 인공지능의 도전 - 월 만 원짜리 앱이 선생님보다 낫다면?

지금 ILA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인공지능 기반 영어 학습 앱이다.

엘사 스피크(ELSA Speak)는 인공지능 발음 교정 앱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음성 발음 평가 기술을 탑재해 원어민 교사 없이도 발음·억양·유창성을 실시간으로 교정해 준다. 통계 연구에서 표준 시험 점수가 평균 6퍼센트 향상됐다는 결과도 있다. 듀오링고는 2025년 오픈에이아이(Open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공지능 퍼스트" 회사로 전환했다. 월 이용자 1억 2,800만 명 중 베트남인이 3퍼센트, 약 380만 명에 달한다.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과거라면 ILA의 잠재 고객이었을 것이다.

글로벌 디지털 영어 학습 시장은 2026년 약 160억 달러 규모로 연 14.6퍼센트씩 성장 중이다. 2031년에는 316억 달러가 된다. 이 시장에서 인공지능 영어 과정은 전년 대비 2.5배 성장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속도로, 저렴하게"라는 앱의 가치 제안은 ILA의 "비싸지만 확실한 원어민 대면 수업"에 정면으로 맞선다.

⑤ ILA의 생존 전략 - "인공지능이 못 하는 것"을 한다

ILA는 인공지능과 싸우는 대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첫째, 전인교육(全人教育) 포지셔닝이다. ILA의 공식 미션은 "미래 준비형 교육 플랫폼으로 학생들이 평생 배움의 탐험을 멈추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영어 점수가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의 성장"을 판다. 인공지능 앱이 줄 수 없는 사회적 상호작용, 팀 프로젝트, 문화 체험을 수업에 녹인다.

둘째, 기업 교육(B2B) 강화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거 들어오면서 임직원 영어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삼성·엘지·현대 같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법인 직원들도 ILA의 주요 기업 고객이다. 기업 교육은 앱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계약 단위가 커서 수익성도 높다.

셋째, 공립학교 협력 프로그램이다. 하노이와 호찌민시 공립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파견하는 이 프로그램은 브랜드 노출과 잠재 학생 발굴을 동시에 해결한다. 넷째, 이큐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커리큘럼 현대화다. 인공지능 보조 학습 도구를 수업에 도입하되 교사가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인공지능 + 사람"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 중이다.

★ 편집부 종합 평가 - ILA는 살아남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ILA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ILA의 28년 브랜드 자산, 22,000명 수강생, 60개 센터 네트워크는 인공지능 앱이 하루아침에 허물 수 없는 물리적·심리적 해자(壕字)다. 베트남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영어 점수만이 아니다. 원어민과의 실제 상호작용, 또래와의 사회화, 학부모 불안의 해소까지 포함된다. 이것은 앱이 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ILA가 "고가 프리미엄 학원"에만 머문다면 위험하다. 이큐티의 전략처럼 증가 시장 진입, 유아원 확장, 기업 교육 강화라는 세 방향의 다각화가 성공해야 ILA는 2030년대에도 베트남 교육 시장의 주역으로 남을 수 있다. 한국 교육 기업들에게 ILA는 파트너 혹은 경쟁자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기업 연수 교육·아동 영어 교육 분야에서 ILA와의 협력 또는 경쟁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

[출처: ILA 공식 웹사이트(ila.edu.vn)·이큐티(EQT) 포트폴리오 페이지·크런치베이스 ILA 베트남 프로파일·시리어스티처스(SeriousTeachers)·모르도르인텔리전스 디지털 영어 학습 시장 보고서·비즈니스오브옵스 듀오링고 통계 (2024~2026.07)]

8.1조 원을 버는데 마진은 1.1조 원뿐 베트남 캐슈넛의 역설, 20년 세계 1위의 빛과 그늘

2025년 수출 52억 3,000만 달러(8.1조 원) - 역대 최고 · 수입 원료비 45억 달러(7.0조 원) - 마진 7억 3,000만 달러(1.1조 원) · 원료 수입 의존도 90% · 반가공 수입 15만 톤(원료 환산 70만 톤 상당) · 아프리카의 하청 공장 전략 우려 · 중국이 미국 제치고 최대 수입국 · 2031년 시장 규모 55억 달러(8.5조 원) 전망



52억 달러를 벌었는데 손에 남는 것은 7억 달러뿐이다.

2025년 베트남 캐슈넛 산업의 역대 최고 수출 실적(52억 3,000만 달러·약 8조 1,000억 원)의 이면을 보면 불편한 숫자가 나온다. 원료 수입에만 45억 달러(약 7조 원)를 썼다. 남는 것은 약 7억 3,00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 마진을 13.9퍼센트다. 20년간 세계 최대 캐슈넛 가공·수출국 자리를 지켜왔지만 정작 수익 구조는 취약하다. 바이나카스(베트남 캐슈넛협회·VINACAS) 부회장 바흐 칸 닷은 "베트남이 아프리카의 캐슈넛 공장이 됐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데이터로 완전히 해부한다.

2025 수출액 (역대 최고)	원료 수입액 (역대 최고)	실질 가공 마진 (수출-수입)
52.3억 달러 ≈ 8.1조 원 수출량 76만 6,585톤 · 90개국 판매 · +20.4%	45억 달러 ≈ 7.0조 원 300만 톤 수입 · 자급률 10% · 90% 수입 의존	7.3억 달러 ≈ 1.1조 원 마진을 13.9% · 아프리카 경쟁 격화로 압축 위기

▶ 베트남 캐슈넛 수출 추이 — 계산기 검증 완료

연도	수출량(톤)	수출액(달러)	수출액(원화)	증감 · 비고
2021	738,000톤	\$36.3억	5.6조 원	전고점. 이후 2년 조정
2022	606,420톤	\$30.8억	4.8조 원	물가 · 공급망 충격으로 감소
2023	644,130톤	\$36.4억	5.6조 원	+24% 반등. 중국 수요 급증
2024	730,000톤	\$43.7억	6.8조 원	+13.3% · 가격 상승 효과
2025	766,585톤	\$52.3억	8.1조 원	역대 최고. +20.4% · 중국 1위
2031 전망	—	\$55억+	8.5조 원+	연평균 8.88% 성장 전망(모르도르 인텔리전스)

① 20년 세계 1위 - 베트남 캐슈넛 산업의 성장 이야기

베트남 캐슈넛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빈프억(Bình Phước)·동나이(Đồng Nai)·바리아붕파우(Bà Rịa-Vũng Tàu) 등 남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한 가공업이 2000년대 초 세계 시장의 수요 급증과 맞물리며 빠르게 성장했다. 2000년대 중반 이미 세계 최대 캐슈넛 가공·수출국이 됐고 그 자리를 20년 넘게 지키고 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베트남 노동자들의 손기술이다. 캐슈넛 껍데기를 벗기고 알맹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기계보다 사람 손이 더 정밀하고 손상이 적다. 특히 최고 등급(W180·W240, 알이 크고 온전한 것)을 골라내는 마지막 공정은 베트남 숙련 노동자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생산국들이 처음 70퍼센트는 기계로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나머지 30퍼센트 마무리 공정은 아직 베트남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2025년 수출 실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역대 최고다. 수출량 76만 6,585톤은 5.7퍼센트 증가에 그쳤지만 수출액은 52억 3,000만 달러(약 8조 1,000억 원)로 20.4퍼센트 급증했다. 물량보다 가격이 오른 것이다. 톤당 평균 수출 단가 6,821달러는 전년 대비 13.9퍼센트 높아졌다. "더 많이 팔지 않아도 더 많이 버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다.

▶ 2025년 베트남 원료 캐슈넛 수입 국가

수입국	비중	증감(전년비)	특징
캄보디아(1위)	32.9%	+38.7%	최대 공급국.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인접. 메콩 델타 연결
코트디부아르(2위)	25.3%	+47.6%	서아프리카 최대 생산국. 원료 품질 우수
나이지리아(3위)	9.3%	+42%	서아프리카 2위. 물량 확대 중
가나(4위)	7.7%	+12%	코트디부아르산 우회 경로 포함 가능성
기타 아프리카 · 아시아	24.8%	—	기니비사우 · 탄자니아 · 모잠비크 등 다수



② 아프리카산 캐슈가 "메이드 인 베트남"이 되는 구조 - 실체와 문제점

베트남 캐슈넛 산업의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문제다.

2025년 베트남이 수입한 원료 캐슈는 300만 톤이다. 베트남 국내 생산(약 35만 톤·2023년 기준)의 약 8.6배다. 이것을 베트남에서 가공해 수출하면 "베트남 가공 캐슈넛"이 된다. 유럽연합·미국 슈퍼마켓에 "Product of Vietnam"으로 팔리는 캐슈넛의 원료 대부분은 아이보리코스트·나이지리아·가나·감보디아에서 왔다.

더 복잡한 문제가 최근 새로 생겼다. "반가공(Semi-processed) 캐슈" 수입이다. 2020년 수만 톤에 불과했던 반가공 캐슈 수입이 2025년 11개월 기준 15만 톤으로 폭증했다. 원료로 환산하면 약 70만 톤 상당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70퍼센트 가공을 마친 뒤 베트남에 보내고 베트남은 마지막 30퍼센트 마무리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베트남의 부가가치 창출은 더욱 줄어든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원료 조달이 어려울 때 반가공 수입은 공급을 안정시키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 가공 업체들은 원료가 부족할 때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로부터 반가공을 수입하는 것은 "베트남의 정밀 마무리 기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가 더 크다. 첫째, 수익성 압박이다. 원료비가 수출액의 86퍼센트나 되는 구조에서 원가가 조금만 올라도 마진이 사라진다. 둘째, 브랜드 가치 훼손이다. "베트남 캐슈"의 명성이 실제로는 "아프리카산 캐슈의 베트남 마무리"와 동일시될 경우 고급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포지셔닝이 흔들린다. 셋째, 아프리카의 추격이다. 코트디부아르는 2024년 핵인(kernel·가공된 알맹이) 수출 7만 2,000톤을 기록하며 2020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베넌은 2024년 원료 수출을 아예 금지하고 국내 가공을 강제했다. 아프리카가 마지막 30퍼센트 기술을 터득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③ 시장 지각변동 - 미국 1위를 빼앗은 중국

2025년 베트남 캐슈넛 시장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이 된 것이다.

중국: 11억 1,500만 달러(약 1조 7,300억 원) — 1위 미국: 9억 7,500만 달러(약 1조 5,100억 원) — 2위 네덜란드: 4억 9,500만 달러(약 7,700억 원) — 3위.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 중산층의 건강 간식 수요가 폭발했다. 견과류는 중국에서 "건강한 선물"로 인식되며 설날·추석 등 명절 선물 세트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미국의 대(對)베트남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2025년 1분기 수출이 14.5퍼센트 감소했다.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한 탓이다. 단일 시장 의존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베트남 업계가 중국·유럽연합·일본으로 다변화한 것이 결과적으로 옳은 전략이 됐다.

④ 미래 비전 - 베트남 캐슈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바이나카스와 베트남 농업부가 제시한 방향과 편집부 분석을 종합하면 베트남 캐슈의 미래는 세 가지 전환에 달려 있다.

첫째, "원료 가공"에서 "브랜드 제품"으로의 전환이다. 지금은 껍질을 벗긴 캐슈 알맹이(kernel)를 벌크로 수출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것은 "구운 소금 캐슈 스낵", "유기농 인증 캐슈", "초콜릿 코팅 캐슈" 같은 완제품이다. 2025년 이미 86.45퍼센트가 가공 캐슈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체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비율은 아직 낮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접 소비자 판매(D2C)가 새로운 기회다.

둘째, 국내 원료 생산 회복이다. 자급률 10퍼센트는 너무 낮다. 기후변화로 베트남 캐슈 농장의 수확량이 해마다 불안정해지고 있다. 가뭄·병충해에 강한 새 품종 개발과 스마트팜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 계약 재배 모델을 통해 가공 업체와 농가가 장기 계약으로 묶이면 공급 안정성이 올라간다.

셋째, 유럽연합 지속가능 공급망 규정 대응이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수입 농산물에 대해 "삼림 파괴와 무관한 공급망"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산 원료의 원산지과 재배 방식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공급망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이 인증을 갖춘 베트남 업체는 유럽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다.

★ 편집부 종합 평가 - 세계 1위의 자리는 유지하겠지만, 방식을 바꿔야 한다

베트남 캐슈넛 산업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세계 1위 가공국이지만, 실질 부가가치는 세계 1위가 아니다."

52억 달러를 수출해서 7억 달러 남기는 구조는 외형의 화려함과 내실의 빈약함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가공 위주 수출 모델"의 딜레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술을 키우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 코트디부아르는 이미 세계 3위 핵인 수출국이 됐고 베넌은 원료 수출 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가공 산업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베트남의 숙련 노동자 기술, 물류 인프라, 90개국 수출 네트워크, 연평균 8.88퍼센트 성장하는 세계 캐슈넛 수요는 모두 베트남에 유리한 조건이다. 2031년 시장 규모 55억 달러(8조 5,000억 원) 전망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캐슈넛 산업은 두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스마트팜·드론 농업·병충해 방제 기술을 통한 베트남 캐슈 농장 생산성 향상 협력. 둘째, "Korean Premium Cashew" 브랜드화다. 한국의 프리미엄 식품 포장·마케팅·유통 능력과 베트남의 가공 기술을 결합해 한국 시장과 아시아 프리미엄 간식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공동 브랜드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HWASEUNG Enterprise

화승엔터프라이즈

당신이 아는 화승 당신이 몰랐던 화승

하나를 하고도 열을 드러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열을 하고도 하나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의 부족함을 연구하고
길을 닦기보다는 속과 뒤, 그리고 신뢰를 다져온 화승그룹

진심이 있는 기술은 깊이가 다릅니다
역사가 있는 혁신은 내일이 다릅니다

교민과 항상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기업

HWASEUNG
Enterprise

1억 명의 나라가 흔들린다

두 자녀 정책 폐지, 노령화의 그림자, 그리고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것

총 인구 1억 명 돌파 · 중위 연령 33.4세 · 생산가능인구 67.4%(6,820만 명) · 합계출산율 1.91명(2024년 역대 최저) · 대체 출산율 2.1명 미달 · 호찌민시 출산율 1.32명 — 전국 최저 · 2034년 고령 사회 진입 예상 · 2054년 인구 자연 감소 시작 예상 · 두 자녀 정책 2025년 6월 공식 폐지 · 인구법



"베트남이 두 자녀 정책을 버렸다."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1988년부터 37년간 베트남 사회를 지배했던 인구 통제 정책이 2025년 6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공식 종료됐다. “두 자녀 이상 낳지 말라” 했던 나라가 이제 “더 낳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제발 낳아주세요”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왜 그렇게 됐는가. 지금 베트남 인구 지도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인구 문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이 모든 것을 쉬운 언어로 완전히 해부한다.

총 인구 · 중위 연령	합계출산율 (2024년 역대 최저)	생산가능인구 (황금 인구 창)
1억 명 돌파 중위 33.4세 동남아시아 3위·젊은 나라의 마지막 황금기	1.91명 대체 출산율 2.1명 미 달·2011년 이후 지속 하락	67.4% 6,820만 명 부양비율 47.8·2040년 까지 황금 창 유지

▶ 베트남 연령대별 인구 구조 (2024~2026년 기준)

※ 국가통계청 · UN 세계인구전망 2024 기준

연령 계층	비율	인구 수 (추정)	경제적 역할	특이사항
0~14세 (유소년층)	23.3%	약 2,360 만 명	미래 노동력	2011년 29%에서 급감·초등 취학 률 99%·영유아 소비시장 주목
15~34세 (청년층)	약 30%	약 3,050 만 명	핵심 소 비·노동	디지털 네이티브·MZ세대·스마 트폰 보유율 80%+·K-컬처 열 풍 주도
35~64세 (중장년층)	약 37%	약 3,750 만 명	생산· 소비 주도	소득 최고 구간·부동산·자동차· 금융 주 소비층·자녀교육 투자 집
65세 이상 (노년층)	9.3%	약 940만~ 950만 명	부양 대상	2011년 7% → 현재 9.3%·2034 년 14% 예상·요양·헬스케어 시 장 폭발 예상
생산가능인구 (15~64세) 합계	67.4%	약 6,820 만 명	황금 인구 창	부양비율 47.8·인구 보너스 현재 진행 중·2040년 이후 하강 시작

① 인구 분포를 한눈에 - 지금 베트남은 어떻게 생겼는가

베트남 인구 1억 명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불규칙하게 불룩한 피라미드”가 그려진다.

맨 아래 유소년층(0~14세)은 전체의 23.3퍼센트, 약 2,360만 명이다. 2011년(29퍼센트)에 비해 크게 줄었다. 아이가 태어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이다.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체의 67.4퍼센트, 약 6,820만 명으로 가장 두꺼운 층을 이룬다. 이것이 지금 베트남 경제를 달리게 하는 엔진이다. 8.39퍼센트 경제 성장, 52억 달러 캐슈넛 수출, 346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6,820만 명의 일하는 손이 있다.

맨 위 노인층(65세 이상)은 현재 9.3퍼센트, 약 940만~950만 명이다. 2019년(7.7퍼센트)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 이 비율이 2034년에는 14퍼센트를 넘고 2049년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 연령 33.4세라는 숫자는 “아직은 젊다”는 신호다. 한국의 중위 연령이 약 45세, 일본이 49세임을 감안하면 베트남은 한국보다 12살 젊은 사회다. 이 젊음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베트남 경제의 핵심 변수다.

② 왜 정부가 민감한가 - 합계출산율 1.91명이 가져올 충격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합계출산율 1.91명.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1명이어야 한다. 2.1명을 넘으면 인구는 자연히 늘고, 2.1명 미만이면 인구는 결국 줄어든다.

1988년 두 자녀 정책을 시작할 때 베트남 출산율은 4명이 넘었다. 그로부터 36년 후인 2024년, 출산율은 1.91명까지 떨어졌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에는 2.11명이었다. 2021 → 2.01 → 1.96 → 1.91 - 매년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의 출산율 붕괴가 심각하다. 호찌민시의 합계출산율은 1.32명, 하노이는 1.4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 경제 중심지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부 산악 지역 소수민족들은 2.34명으로 여전히 대체율을 웃돈다. “가난한 곳은 많이 낳고, 부유한 곳은 낳지 않는” 역설적인 인구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지금 베트남 성·시 가운데 대체 출산율 2.1명을 유지하는 곳은 17퍼센트뿐”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83퍼센트의 지역이 이미 인구 대체 능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 베트남 인구 노령화 타임라인 — 얼마나 빠른가

연도	이정표	노인 비율	경제적 함의
2011년	고령화 사회 진입	7% 초과	지금부터 노인 부양 비용 증가 시작
2026년 (현재)	고령화 사회 진행 중	9.3%	노인 약 940만~950만 명·연금·의료 지출 확대
2034년	고령 사회 예상	14% 초과	노동력 감소 본격화·이민·자동화 필요성 급증
2040년	황금 인구 창마감	생산가능인구 비율 하강	인구 보너스 종료·경제 성장을 하방 압력
2042년	생산가능인구 정점	생산 인구 최대	이후 생산 인구 감소 시작
2049년	초고령 사회 진입	20% 초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료·복지 재정 부담 폭발적 증가
2054년	인구 자연 감소	사망>출생	총인구 감소 시작·내수 시장 축소 위험

③ 인구 보너스란 무엇인가 - 경제 성장의 숨겨진 엔진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왜 베트남 정부가 인구 문제에 이토록 민감한지 알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 부양비율이란 "일하는 사람 100명이 부양하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지금 베트남의 부양비율은 47.8이다. 즉 일하는 사람 100명이 약 48명(노인+어린이)을 먹여 살린다는 뜻이다. 이것이 낮을수록 나라 경제에 유리하다.

인구 보너스 시기란 이 부양비율이 낮게 유지되는 기간이다. 일하는 사람이 많고 부양받는 사람이 적으면 ① 가계 저축이 늘고 ② 소비가 활발해지며 ③ 투자가 증가한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1970~2000년대 고도성장 기간이 "인구 보너스 효과" 덕분에 상당 부분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베트남도 1985년부터 이 황금기에 진입했다.

그런데 이 황금기가 2040년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2042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하며 2054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자를 초과해 인구가 자연 감소로 전환된다. 지금부터 2040년까지 약 14년. "황금 인구 창이 닫히기 전에 최대한 활용하라"는 압박이 베트남 정부 정책의 근저에 깔려 있다.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면 이해가 빠르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노동력 감소가 시작됐고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공장을 돌리기 어렵다. 베트남은 그 길을 걷지 않으려 서두르고 있다.

④ 두 자녀 정책 폐지 이후 - 새 인구 정책의 기초는 무엇인가

2025년 6월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로 두 자녀 제한이 폐지됐고 같은 해 12월 10일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인구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단순히 "아이를 더 낳아도 된다"가 아니라 "왜 낳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종합 대책이다.

새 인구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장려금(베이비 보너스)을 지급한다. 둘째, 두 번째 자녀를 낳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7개월로 연장한다.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에게 10일 유급 휴가를 준다. 셋째,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 사회주택(공공 임대주택) 우선 배정권을 준다. 넷째, 소수민족·저출산 지역 여성에게 추가 재정 지원을 한다. 다섯째, 노인 복지를 강화한다. 미가입 노인에게도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나선 런던 선임 경제고문은 "법적 제한 해제는 출발점일 뿐이며 여성과 가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경고했다. 베트남 사회학자들이 추정하는 영아~22세 육아 비용은 월 1,000만~2,000만 동(약 58만~116만 원)으로 베트남 평균 월 소득을 초과한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제적 현실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정책 전환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 맞춤 접근"이다. 호찌민시처럼 출산율이 1.32명인 곳과 북부 산악처럼 2.34명인 곳에 같은 정책을 쓰지 않는다. 저출산 지역에는 장려금을 집중 지원하고 고출산 지역에는 교육·보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별화 전략이 새 인구법의 핵심이다.

⑤ 한국 기업에게 인구 변화가 보내는 신호 - 5가지 기회와 주의사항

베트남 인구 구조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첫째, 영유아·육아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영유아 식품·분유·기저귀·유아교육 시장이 커진다. 일동후디스·남양유업·휴온스 같은 한국 영유아 제품 기업들에게 "지금이 베트남 진출의 적기"라는 신호다.



둘째, 실버 경제(Silver Economy)의 부상이다. 940만 명의 노인이 2034년에는 더 빠르게 늘어난다.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요양 서비스·시니어 주거 시장이 베트남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다.

셋째, 노동력 고령화와 자동화 수요다. 지금 베트남 공장의 경쟁력은 "젊고 저렴한 노동력"에 있다. 2030년대 후반부터 이 경쟁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삼성·LG 같은 기업들이 지금부터 스마트 공장·자동화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넷째, 교육·보육 시장이다. 새 인구법이 맞벌이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양질의 어린이집·유치원·영어 교육 서비스 수요가 커진다. 한국 교육 브랜드들의 베트남 진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다섯째, 중장기 내수 시장에 대한 현실적 시각이다. 2054년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면 내수 시장이 축소된다. 지금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는 한국 기업은 "30년 짜리 성장 시장"을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이후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편집부 종합 평가 - "보는 것"이 "사는 것"이 된 시대, 그리고 K-패션의 자리

베트남 패션 전자상거래의 핵심 변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쇼핑이 콘텐츠가 됐다." 틱톡샵의 69퍼센트 성장률이 보여주듯, 베트남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필요해서" 옷을 사지 않는다. "재미있어서, 영상을 보다가" 산다.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브랜드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제작 원산지 측면에서는 베트남 현지 브랜드의 약진이 가장 인상적이다. 45퍼센트라는 점유율은 "메이드 인 베트남"이 더 이상 저가 하청 생산의 상징이 아니라 자체 디자인과 빠른 생산력을 갖춘 독립 브랜드의 무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6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금 강화는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K-패션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39퍼센트 성장이라는 견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비결은 "가성비"와 "신뢰"의 결합이다. 명품처럼 비싸지 않으면서도 한국 브랜드 특유의 품질과 디자인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 베트남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다만 무신사·젠틀몬스터 같은 상위 브랜드들이 중국·일본 시장에서 보여주는 폭발적 성장 속도와 비교하면 베트남은 아직 "다음 격전지"로 남아 있다. 한국 패션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지금이 본격적인 현지화 진출을 검토할 시점이다.

닥락(Đắk Lắk) - 베트남 중부 고원, 커피·코끼리·폭포가 함께 치유하는 땅

베트남 커피 수도 부온마투웃(Buôn Ma Thuột) • 해발 500~600m 중부 고원(따이응우옌) • 아시아 유네스코 무형유산 - 동라(Cồng Chiêng) 청동 징 음악 • 아시아 최대 야생 코끼리 보호구역 요크돈 국립공원(51,780헥타르) • 드레이 누르 폭포 - 폭 250m • 높이 30m 동남아 최대급 • 락 호수 글램핑 • 에데(Ede) • 므농(M'nong)족 소수민족 홈스테이 • 세계커피박물관 • 11~4월 건기 최적



커피가 치유가 된다는 것을 닥락에 오면 처음으로 믿게 된다.

베트남 커피 수도 부온마투웃(Buôn Ma Thuột), 호찌민시에서 북쪽으로 약 340킬로미터, 해발 500~600미터 중부 고원에 자리한 이 도시는 베트남 전체 커피 생산의 40퍼센트 이상을 책임진다. 거리 곳곳에서 커피 볶는 냄새가 난다. 그런데 닥락이 특별한 이유는 커피 때문만이 아니다. 폭 250미터, 높이 30미터의 드레이 누르 폭포가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윤리적인 야생 코끼리 관찰 투어가 있으며 에데·므농족 소수민족이 수백 년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다. 커피 향기, 폭포 소리, 코끼리의 숨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곳은 지구 위에서 닥락 하나다.

닥락 기본 정보

위치	닥락성(Đắk Lắk) • 성도 부온마투웃(Buôn Ma Thuột) • 호찌민시 북쪽 340km • 하노이 남쪽 1,400km
고도·기후	해발 평균 500~600m • 연평균 기온 23° C • 11~4월 건기(최적) • 5~10월 우기(폭포 장관)
접근 방법	항공: 호찌민 • 하노이 • 다낭 → 부온마투웃(BMT) 공항 직항 1~2시간 버스: 호찌민 → 부온마투웃 약 8~10시간 슬리퍼버스
유네스코	동라(Cồng Chiêng) 타이응우옌 청동 징 음악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커피	베트남 커피 생산의 40%+ • 로부스타 품종 주력 • 세계커피박물관(World Coffee Museum) 운영
소수민족	에데(Ede)·므농(M'nong)·자라이(Jarai)·바나(Ba Na)족 등 다수
7~8월 특징	우기지만 폭포 수량 최대 • 선선한 고원 기온 • 커피 꽃 시즌(3~4월)과 구분되지만 녹음 짙고 시원함

① 아코동 마을 커피 명상 - 베트남 최고의 커피 한 잔이 치유를 시작한다

부온마투웃 시내 • 에데족 긴 고상가옥 카페 • UNESCO 무형유산 동라 연주 청취 가능

커피를 마시는 것이 명상이 되는 장소가 있다.

아코동(Ako Dhong) 마을은 부온마투웃 시내에 있지만 도시 속 비밀 정원처럼 숨어 있다. 에데(Ede)족이 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에 들어서면 수십 미터 높이의 오래된 나무들이 하늘을 덮고 그 아래에 에데족 긴 고상가옥(룽하우스)이 서 있다. 카페



아를(Arul)은 이 고상가옥을 그대로 카페로 쓴다. 나무 기둥, 대나무 벽, 에데 전통 공예품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갓 볶은 로부스타 커피 한 잔을 받아 들면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이 커피는 이 땅의 흙과 이 고원의 바람이 키운 것이다. 근처 세계커피박물관에서는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어 베트남 고원에 뿌리내리기까지의 4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② 요크돈 국립공원 - 아시아에서 가장 윤리적인 코끼리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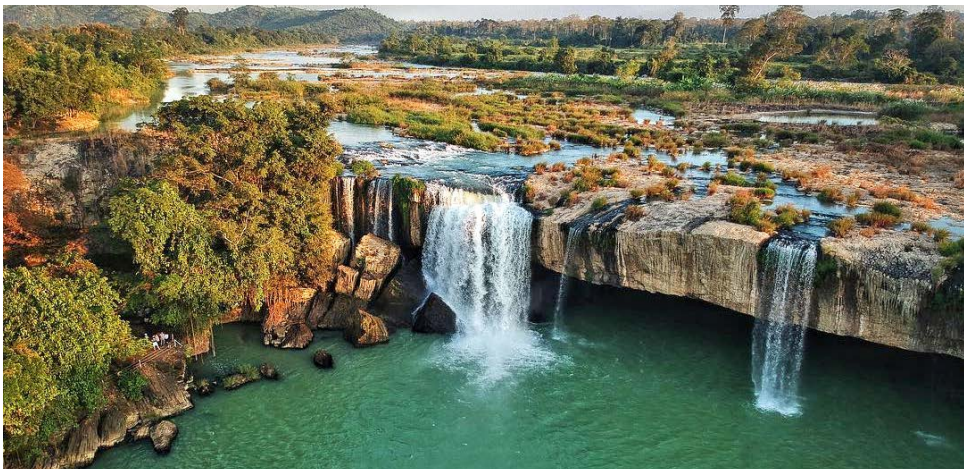
부온마투웃에서 북서쪽 50km • 51,780헥타르 • 캄보디아 국경 인접 • 야생 코끼리 45마리+

코끼리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가 사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다.

요크돈(Yok Don) 국립공원은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이다. 51,780헥타르의 광대한 낙엽수림에 야생 코끼리 45마리 이상이 산다. 2021년부터 국제 동물 보호단체 애니멀스 아시아(Animals Asia)와의 협력으로 "베트남 최초의 윤리적 코끼리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 투어는 코끼리에 올라타거나 쇠사슬로 묶는 방식을 완전히 없앴다. 대신 숙련된 레인저(공원 경비원)를 따라 숲 속을 걷다가 자유롭게 풀을 뜯는 코끼리를 적당한 거리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코끼리들은 마룻(코끼리 담당자)이 옆에 있지만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 무결한 자유의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힐링 여행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경험이다. 투어 후에는 세레포크(Serepok)강에서 1시간 보트 투어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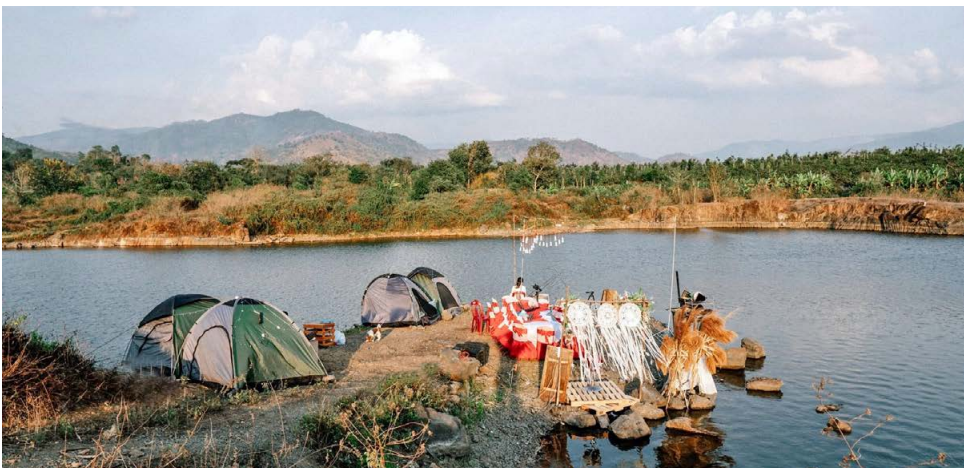


③ 드레이 누르·드레이 샵 폭포 - 동남아 최대급 폭포가 내뿜는 치유의 물안개
부온마투웃에서 남쪽 25km • 폭 250m • 높이 30m • 세레포크강 폭포군 • 수영 가능
물안개가 온몸을 감싸는 순간, 도시의 먼지가 전부 씻겨 내려간다.



에데어(Ede語)로 드레이 누르(Dray Nur)는 "아내 폭포", 드레이 샵(Dray Sap)은 "연기 폭포"라는 뜻이다. 드레이 누르는 폭 250미터, 높이 30미터로 세레포크(Serepok)강이 만들어내는 다락 최대의 폭포다. 다락성과 다농성 두 개 성의 경계에 걸쳐 있어 폭포 하나가 두 개 성을 잇는 자연의 다리가 된다. 우기(5~10월)에는 수량이 최대에 달해 폭포 앞에 서면 굉음과 함께 물안개가 사방을 가득 채운다. 이 안개 속에서 서 있는 것만으로 피부가 젖고 폐 속까지 습하고 시원한 공기가 들어온다. 지정 구역에서 수영도 가능하며 폭포 아래 레스토랑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면 자연이 차려준 최고의 점심상이 된다. 트링 응우옌 힐링 투어리즘 컴퍼니가 래프팅·클라이밍·캠핑을 결합한 올 어드벤처 투어도 운영한다.

④ 락 호수 글램핑 - 고원 호수 위에서 하룻밤



부온마투웃에서 동남쪽 55km • 면적 6km² • 고도 500m • 베트남 최대 자연 담수호 호수가 하늘을 담고 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잠든다.

락 호수(Lák Lake)는 중부 고원에서 가장 큰 자연 담수호다. 면적 6제곱킬로미터, 해발 500미터 고지대. 마지막 황제 바오 다이(Báo Đại)가 별궁을 지을 만큼 이 땅의 아름다움을 탐했던 곳이다. 지금 이 호수에서 가장 특별한 숙박 경험은 락 텐티드 캠프(Lak Tented Camp)다.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럭셔리 텐트가 놓여 있고 밤에는 별이 호수 위에 반사된다. 아침에는 므농족이 저어주는 독목선(통나무배)을 타고 안개 낀 호수 위를 가로지른다. 가끔 호수 옆을 코끼리가 지나간다.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다락이 주는 가장 깊은 치유다.

⑤ 에데 · 므농족 마을 - 수백 년 소리가 지금도 울리는 청동 징의 땅

반돈(Ban Don) • 아코동 마을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동라(Công Chiêng) 청동 징 음악 소리가 치유가 된다는 것을 유네스코도 인정했다.

다락 중부 고원에는 에데·므농·자라이·바나족 등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대대로 살아간다. 이들이 수백 년 전부터 연주해온 청동 징(Công Chiêng) 음악은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징 소리는 단순한 악기 연주가 아니다. 에데족에게 징은 신과 소통하는 도구다. 마을 광장에서 저녁에 피우는 모닥불 앞에 앉아 수십 개의 청동 징이 서로 다른 음정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면 몸이 소리에 동화되는 경험을 한다. 이것을 "소리 명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에데족 긴 고상가옥에서 홈스테이를 하면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닭고기·쌀밥·죽순 등 전통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진짜 고원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 추천 2박 3일 다락 힐링 일정

일차	경로 · 장소	핵심 힐링 포인트	숙박
1일차	부온마투웃 도착 → 커피 투어	아코동 마을 커피 정원·에데족 긴 고상가옥·세계커피박물관·까페 아룰(Arul) 커피 명상	락(Lak) 텐티드 캠프 또는 부온마투웃 시내
2일차 새벽	락 호수 일출 → 요크돈 국립공원	락 호수 새벽 독목선(Dugout Canoe) · 유네스코 공예 청동 징 연주 관람 · 윤리적 코끼리 관찰 투어(승마 금지)	요크돈 공원 내 홈스테이
3일차	드레이 누르·드레이 샵 폭포 트레킹	250m 폭포 아래 수영·세레포크강 래프팅·반돈(Ban Don) 에데·므농족 마을 ·야시장	귀환

여행자 실전 가이드 - 다락 힐링 여행 완벽 준비

- 최적 시기 11~4월 건기(맑음·시원)·7~8월 우기도 폭포 수량 최대+선선하여 힐링에 적합
- 항공 접근 호찌민·하노이·다낭→부온마투웃(BMT) 직항 1~2시간·항공권 편도 60만~150만 동(2만3,000~5만8,000원) 수준
- 커피 필수 시내 까페 아룰(Arul)·하우스 오브 렌즈(House of Lens)·세계커피박물관·트링 응우옌 빌리지 커피 방문 필수
- 코끼리 윤리 요크돈 코끼리 승마 절대 금지·애니멀스 아시아 파트너 프로그램 예약 권장·하루 전 예약 필수
- 글램핑 락 텐티드 캠프(Lak Tented Camp): 1박 약 200만~350만 동(7만7,000~13만5,000원)·하이바중 호텔앤스파(5성): 시내 최고급
- 홈스테이 에데족 긴 고상가옥 홈스테이 1박 20만~50만 동(7,700~1만9,000원)·청동 징 연주 직접 체험 가능·예약은 현지 여행사 통해
- 음식 추천 미짱(비빔국수)·반미(바게트 샌드위치)·므농족 훈제 고기(독수리 나무 잎으로 훈제)·다락 아보카도 스무디·흑후추 소금 찍어 먹는 고산 돼지고기
- 주의사항 7~8월 우기·강우 시 폭포 트레킹 미끄러움 주의·해발 고원이니 일교차 큼(겉옷 필수)·현금 준비(ATM 드림)

[출처: vietnam.travel(베트남 관광청) · 오리진베트남(Origin Vietnam) · 트립어드바이저 다락 · 베트남어메이징(Vietnam Amazing) · VietnamNews 다락 특집 · 트립닷컴 요크돈 (2024~2026.07)]

진흙 속에서 왔다, 숯불로 갔다 까 껌오(Cá Kèo), 안장성 홍수기 미꾸라지가 별미

안장(An Giang)성 찌우독(Châu Đốc) · 빈롱(Vĩnh Long) · 껀터(Cần Thơ) / 홍수기 7~11월 수로 · 논바닥 서식 / 뼈 적고 살 달콤 / 껌질째 통으로 조리 / 전골 · 구이 · 튀김 · 조림 · 발효젓 전골 5가지 조리법



비가 오면 진흙 속에서 나온다.

까 껌오(Cá Kèo)는 메콩 델타 수로 바닥 진흙 속에 사는 생선이다. 정확히는 망둑어과(Gobiidae)로, 한국어로는 찰뚱어에 가깝지만 현지에서는 "미꾸라지"로 통한다. 홍수기에 물이 들어오면 논과 수로를 가득 채우고 물이 빠지면 다시 진흙 속으로 사라진다. 뼈가 적고 살이 달콤하며 손질이 간단하다. 안장성 찌우독(Châu Đốc) 사람들은 이 생선이 나오는 계절을 손꼽아 기다린다.

① Lẩu Cá Kèo Lá Giang 러우 까 껌오 라 지앙 — 라 지앙 잎 전골

안장성 찌우독 · 빈롱성 강변 식당 · 홍수기 대표 외식

새콤한 라 지앙(Lá Giang) 잎으로 신맛을 낸 전골. 살아있는 까 껌오를 그대로 넣는다.

러우 까 껌오 라 지앙은 까 껌오 요리 중 가장 극적인 음식이다. 라 지앙(Lá Giang)은 메콩 델타 자생 덩굴 식물의 잎으로 끓이면 자연스러운 신맛이 나온다. 타마린드 대신 이 잎으로 신맛을 내는 것이 이 전골의 핵심이다. 살아있는 까 껌오를 끓는 냄비에 넣는 순간 생선이 뜨거운 물 속에서 몸을 비틀며 저항한다. 현지인들은 이 순간을 두고 "생선이 춤을 춘다"고 표현한다. 잠시 후 조용해지면 그게 먹을 타이밍이다. 수련(봉 수웅)·공심채를 함께 넣고 생강 생선장(느억 맘 지아·Nước Mắm Gừng)에 찍어 먹는다. 찌우독 강변 식당에서 홍수기 저녁마다 펼쳐지는 풍경이다.

160,000동 ≈ 9,159원 (2인분 · 찌우독 강변 식당)

② Cá Kèo Nướng Muối Ớt 까 껌오느엉 무오이엿 — 소금 · 고추 숯불 구이

안장성 · 찌우독 야시장 · 가장 단순한 홍수기 간식

소금·고추만 문질러 숯불에 굽는다. 껌질은 바삭, 속살은 촉촉. 양념이 방해가 된다.





까 껌오 느엥 무오이 엇은 이 생선의 맛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조리법이다. 내장을 정리한 뒤 소금과 고춧가루만 문질러 숯불 위에 올린다. 껍질이 먼저 바삭해지고 속살에서 기름이 배어나온다. 다 익으면 라임을 짜고 소금·고추 찍는 소스만 곁들인다. 찌우독 야시장 골목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구이를 굽는 노점이 늘어선다. 갓 구운 까 껌오 한 마리를 손으로 집어 머리부터 통째로 먹는 것이 현지 방식이다. 가시가 거의 없어 통째로 씹힌다.

80,000동 ≈ 4,579원 (1인분 • 야시장 노점)

③ Cá Kèo Chiên Giòn 까 껌오 찌옌 지온 - 바삭 통 튀김

안장•껀터•빈롱 • 집에서든, 노점에서도

쌀가루 살짝 입혀 기름에 통째로 튀긴다. 뼈까지 전부 먹는 바삭한 간식.

까 껌오 찌옌 지온은 홍수기 가정집 부엌에서 가장 자주 만들어지는 요리다. 까 껌오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뒤 쌀가루(붓 가오•Bột Gạo)를 아주 얇게 입혀 뜨거운 기름에 넣는다. 생선 전체가 기름 속에서 빠르게 익으며 껍질은 바삭해지고 뼈도 함께 튀겨진다. 다 익으면 기름을 빼고 라임•고추•생선장과 함께 낸다. 뼈까지 바삭하게 씹혀 버린다.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반찬이고 맥주와 함께 먹으면 안주가 된다. 노점에서는 신문지에 싸서 100그램 단위로 팔기도 한다.

35,000동 ≈ 2,004원 (1인분 • 노점 기준)

④ Cá Kèo Kho Mía 까 껌오 꼬 미아 - 사탕수수 조림

빈롱성•껀터시•메콩 델타 가정식

사탕수수 줄기와 함께 조려 달콤함이 생선 살 속까지 배어든다.

까 껌오 꼬 미아는 안장성보다 아래 빈롱성과 껀터 일대에서 특히 사랑받는 방식이다. 생선장•야자당•후추•마늘•고추로 밑간을 한 까 껌오를 사탕수수(미아•Mía) 줄기와 함께 냄비에 넣고 낮은 불에 천천히 졸인다.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단물이 국물과 섞이면서 인공 설탕과는 다른 깊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만든다. 이 단물이 생선 살 속까지 배어드는 데 약 40분이 걸린다. 흰 쌀밥 위에 올려 숟가락으로 생선을 으깨어 밥과 비벼 먹는다. 이것이 메콩 델타 농부의 홍수기 점심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45,000동 ≈ 2,576원 (1인분 • 가정식•현지 식당)

⑤ Lẩu Mắm Cá Kèo 러우 맘 까 껌오 - 발효젓 전골

안장성 찌우독(Châu Đốc) 명물 • 맘(발효젓)의 본고장

찌우독 발효 생선젓(맘 까 삭•Mắm Cá Sặc)으로 육수를 낸 진한 전골. 메콩 델타의 극치.



러우 맘 까 껌오는 찌우독에서만 완성된다. 찌우독은 베트남에서 발효 생선젓(맘•Mắm)의 수도로 불린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맘 까 삭(Mắm Cá Sặc•발효 숭어젓)으로 전골 육수를 낸다. 발효젓을 물에 풀어 끓이면 진하고 깊은 감칠맛의 육수가 완성된다. 여기에 홍수기 까 껌오를 넣고 돼지 삼겹살•새우•오징어•가지•박•바나나꽃•버섯을 함께 넣는다. 처음 냄새에 주춤하게 되지만 한 입 먹으면 왜 찌우독 사람들이 이것을 최고로 치는지 이해된다. 강한 발효향이 모든 재료의 맛을 하나로 묶는다.

180,000동 ≈ 10,304원 (2인분 • 찌우독 전문 식당)

까 껌오는 메콩 사람들이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물이 들어오면 이 생선이 나온다. 전골로 끓이고, 숯불에 굽고, 기름에 튀기고, 사탕수수와 조리고, 발효젓으로 끓인다. 하나의 생선이 다섯 가지 얼굴을 가진다. 이것이 안장성 사람들이 홍수기를 기다리는 방식이다.



ONE SERVICE

베트남 진출, 원스톱 솔루션 원서비스로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 설립부터 HR, 세무·회계까지 한 번에 해결 !

- ✓ 법인 설립 & 비즈니스 컨설팅
 - 외투법인, 현지법인, 외투전환 설립
 - 사업자 등록, 법인 도장, 초기 세금 신고
- ✓ 세무·회계 관리
 - 월별 세금 신고 & 기장 대행
 - 연말 정산, 재무 보고서, 전자 세금계산서
- ✓ HR & 직원 관리 서비스
 - 직원 채용 & 급여 관리 (현지 & 한국어 가능 인력)
 - 노동허가서 & 사회보험, 아웃소싱 지원
- ✓ 비즈니스 컨설팅 & 행정 업무 대행
 - 공증, 번역 서비스 & 법률 준수 컨설팅
 - 공항 VIP 패스트트랙 (입국 \$18 / 출국 \$25)



원서비스는 다릅니다!

- ✓ 10년 이상의 베트남 법률·세무·HR 경험
- ✓ 한국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신속한 대응
- ✓ 투명한 비용,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상담 및 문의

전 화: 08-3333-1004

이메일: simon@oneservice.group

주 소: 65 Dang Nhu Mai, Phuong Thanh
My Loi, Thanh pho Thu Duc, HCMC

카카오: ONESERVICE1

